

‘교피아 척결’ 위해 꺼낸 칼 슬그머니 도로 넣은 유은혜

〈교육부 장관〉

사립대 총장 취업제한 3년→6년
법안 발의도 않고 담당부서 폐지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지난해 10월1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14차 교육신뢰회복추진단회의에서 미성년 공저자 논문 특별감사 결과 발표 관련 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교육부가 퇴직 공무원의 사립대 취업 제한을 강화하겠다고 약속했으나 1년이 지나도록 이를 지키지 못한 채 해당 업무를 다루던 담당 부서를 폐지하기로 해 논란이 일고 있다.

교육부는 3월1일자 직제 개편을 통해 교육신뢰회복담당관을 폐지하기로 했다. 교육신뢰회복담당관은 지난해 1월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이 단장을 맡은 교육신뢰회복추진단 실무를 담당하는 자리로 교육분야 신뢰회복을 위한 정책과 제도를 총괄해 추진해왔다. 지난해 5월 대학 교수의 미성년 자녀 논문 부정 특별감사를 하기도 했다.

당시 유 부총리는 교육신뢰회복추진단 첫 회의를 가진 자리에서 “올해를 교육신뢰회복의 원년으로 생각하는 만큼 교육부부터 혁신하겠다”며 “교육부를 퇴직한 공직자의 취업 제한을 확대하겠다”고 약속했었다.

교육부는 이를 위해 2019년 업무보고를 통해 교육부 퇴직 공직자 취업 제

한 대상을 기존 사립대학과 법인에서 사립 초·중고와 법인으로 확대하고, 취업 제한 범위도 사립대학 무보직 교원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교육부 퇴직 공무원이 사립대 총장으로 취임하는 것을 제한하는 기간도 3년에서 6년으로 늘리겠다고 했다. 이 가운데 퇴직 공직자 취업 제한 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은 지난해 12월 개정된 공직자윤리법에 담겨 올해 6월 시행 예정이다. 하지만 취업 제한 범위를 무보직 교원까지 확대하는 개정안은 국회 상임위에 계류 중

이며, 퇴직 공무원 사립대 총장 취업 제한 기간을 6년으로 늘리는 내용은 법안 발의조차 되지 않은 상태다.

교육부는 이에 대해 “퇴직공무원 사립대 취업 제한과 관련해 운영지원과와 인사혁신처가 실무업무를 유기적으로 협의해 추진하고 있다”면서 “교육신뢰회복추진단에서 발표한 사학혁신방안 등 세부 과제는 소관부처가 각각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실무 담당관이 없어지면서 교육신뢰회복추진단의 제도 개혁 추진에 힘을 싣기는 더 어려워질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특히 학교법인과 사립학교 비리 임원에 대한 처벌은 강화하면서, 정책 교육부 자체 신뢰회복을 위한 조치는 더디다는 비판도 제기될 전망이다.

교육부는 지난 28일 ‘사립학교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 등의 입법예고를 통해 회계부정 임원취임승인취소기준을 1000만원 이상 배임·횡령시 경고없이 임원승인취소시키고, 기존 3개월 이턴 이사회 회의록 공개기간도 1년으로 연장하는 등 사립학교 이사회 책임성 강화를 위한 법령 제·개정을 추진키로 했다. /한용수 기자 hys@metroseoul.co.kr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숙 여사가 1일 종로구 배화여고에서 3.1절 기념식 참석자들과 함께 만세삼창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3·1 독립운동 정신으로 코로나19 함께 극복을”

문재인 대통령 3·1절 기념식

대구경북 지역 응원·온정의 손길
‘대한민국의 저력’… 존경과 감사

문재인 대통령은 1일 3·1절 101주년을 기념하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사태 극복과 침체된 경제 회복에 전념할 것이라고 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서울 배화여자고등학교에서 열린 3·1절 101주년 기념식에 참석한 가운데 기념사를 통해 “코로나19를 이겨낼 수 있고, 위축된 경제를 되살릴 수 있다. 고통을 나누고 희망을 키워주신 모든 분들께 깊은 존경과 감사의 박수를 보낸다”며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특히 기념사에서 코로나19 확산 기조로 피해가 심각한 대구·경북 지역에 응원과 온정의 손길이 이어지는 데 대해 “대한민국의 저력”이라고 표현했다. 이어 “안으로는 당면한 ‘코로나19’를 극복하고, 밖으로는 ‘한반도 평화와 공동 번영’을 이뤄 흔들리지 않는 대한민국을 만들어낼 것”이라며 “그것이 진정한 독립이며, 새로운 독립의 완성”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와 관련해 “우리는 국가적 위기와 재난을 맞이할 때마다

‘3·1 독립운동의 정신’을 되살려냈다. 억압을 뚫고 희망으로 부활한 3·1 독립운동의 정신이 지난 100년, 우리에게 새로운 시대를 여는 힘이 되었던 우리는 반드시 코로나19를 이기고 우리 경제를 더욱 활기차게 되살려낼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문 대통령은 또 기념사에서 1920년 6월 독립군이 일본군 월강추격대와 독립투쟁 최초로 벌인 전면전에서 대승을 거둔 봉오동 전투에 대해 언급하며 “(홍범도 장군이 이끄는 봉오동 전투 당시) 신식 무기로 무장하고 체계적으로 훈련된 군대와 식량과 의복을 지원한 우리 겨레 모두가 독립군이었고 승리의 주역이었다. 봉오동, 청산리 전투 100주년을 맞아 국민들과 함께 3·1 독립운동이 만들어낸 희망의 승리를 자랑스럽게 기억하고 싶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봉오동 전투와 청산리 전투의 승리를 이끈 평민 출신 위대한 독립군 대장 홍범도 장군의 유해를 드디어 국내로 모셔올 수 있게 됐다. 지난해, 계봉우·황운정 지사 내외분의 유해를 모신 데 이어 ‘봉오동 전투 100주년’을 기념하며 카자흐스탄 대통령의 방한과 함께 조국으로 봉환해 안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영훈 기자 choiyoungk@

새학기부터 마이스터고 51곳 고교학점제… 2025년 전교 도입

192학점시 이수, 조기졸업 가능
성취수준 낮으면 보충학습기로

교육부는 올해 1학기부터 전국 51개 마이스터고에서 고교학점제를 시행한다고 1일 밝혔다.

고교학점제는 대학처럼 학생이 원하는 수업을 선택해 학점을 취득하고, 일정 기준 학점에 도달하면 졸업이 가능한 제도다. 마이스터고는 전문 직업교육을 위해 맞춤형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고교로, 이들 학교부터 올해 도입되고, 2022학년도엔 특성화고와 일부 일반고 등에 부분 도입된다.

올해 초등학교 5학년이 고교에 입학

하는 2025학년도에는 모든 고교에 전면 도입된다.

고교학점제를 통해 학생들의 과목 선택권은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한국 직업능력개발원에 따르면, 올해 신입생 교육과정 중 학과 내 세부과정을 운영하는 마이스터고는 10개교(28개 학과)가 증가했고, 타 학과 부전공을 운영하는 마이스터고는 9개교(22개 학과)가 늘었다.

학생들의 학습 부담은 감소하지만 성취수준이 낮아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마이스터고 신입생이 3년간 이수하는 학점은 192학점으로, 기존 204단위에서 감소하고 1학점 수업량도 기

존 17회에서 16회로 줄어든다. 이에 교육부는 학생이 선택한 전문교과Ⅱ의 실무과목을 이수하면서 성취수준을 달성하지 못하면 부족한 부분을 보충학습토록 했다.

교육부는 2025학년도 고교학점제 전면 도입에 앞서 고교학점제 추진계획을 향후 추가로 마련할 계획이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올해 마이스터고를 시작으로 특성화고, 일반고까지 고교학점제를 단계적으로 도입하고 2025학년도에는 고등학교 전체에 안정적으로 안착할 수 있도록 올해 하반기에 ‘고교학점제 종합 추진계획’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용수 기자

웅진씽크빅 AI홈스쿨링 ‘웅진스마트올’ 3만명 돌파

에듀테크 전문기업 웅진씽크빅은 초·중·고 전과목 인공지능(AI) 스마트 홈스쿨링 ‘웅진스마트올’ 가입자가 3만명을 넘어섰다고 1일 밝혔다.

출시 이후 월 평균 8000여 고객이 꾸준히 가입해 지난주 3만 회원을 돌파했다. 이 달 들어 무료 체험 신청자 수도 8000명을 넘어섰다. 웅진스마트올은 온라인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10일간 무료 체험 신청 가능하다.

웅진스마트올은 인공지능 알고리즘으로 학습자를 실시간 분석해 각 개인에 최적화된 학습과 문항을 제공하는 스마트 학습 서비스다.

/한용수 기자

서울 초·중고 ‘집콕 독서’로 학습결손 보완

휴업 중 재택 독서프로그램 운영

서울시교육청은 학교 휴업기간 중 수업 공백으로 인한 학습 결손 최소화를 위해 관내 초·중고에 서울형 독서·토론교육을 활용한 ‘집콕 독서’를 운영한다고 1일 밝혔다.

집콕 독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로 인한 개학 연기 기간 중 학교에 가지 못하는 학생들이 집에서 독서활동을 통해 개학 이후 교과수업을 준비하도록 하는 학생 재택 독서 프로그램이다.

이에 따라 각 학교는 학교교육과정과 상황에 맞게 프로그램을 마련한다. 교사는 가정학습이 가능한 교육과정을

재구성해 연간 교과 수업 계획을 재조정 후 독서활동 과제, 플립 러닝(Flipped learning) 등을 구성한다.

학교는 학교홈페이지, 모바일 가정통신문, 학급 단독방 등을 활용해 과제와 자료를 제공하고 학생 활동과 활용을 안내한다. 학생 활동 후 제출한 중간결과물을 점검하고 피드백한다.

서울시교육청은 집콕독서를 교과수업 공백을 보완하기 위한 ‘교과연계형 독서 활동’과 인문학적 교양 증진을 위한 ‘인문교양형 독서 활동’으로 유형화해 제시했다.

학생들이 가정에서 전자도서관 전자책 대출을 활용할 수도 있다.

/한용수 기자

한성대 디자인아트교육원 국제 디자인공모전 3년 연속 대상

한성대학교 부설 디자인아트교육원(한디원) 시각디자인전공 학생들이 2019년에 이어 뉴욕 그래픽스 뉴 탈렌트 애뉴얼 2020을 3년 연속 석권했다.

1일 한성대에 따르면, 한디원 시각디자인전공 학생들은 대상 수상자 포함 총 16명의 학생들이 수상했고, 한성대한디원은 국제디자인대학대상 수상

그리고 시각디자인전공 박동주, 한성민 교수는 3년 연속 국제지도교수대상을 수상했다.

한디원 시각디자인전공 학생들은 그래픽, 광고, 패키지, 영상디자인 분야에서 대상 1개, 금상 2개, 은상 2개, 가작상 6개 등 총 11개 작품, 16명의 학생들이 수상했다. /한용수 기자

넷마블 등 게임사 채용 진행

넷마블, 네오플 등 게임업계 주요기업이 직원 채용을 진행 중이다.

1일 게임 전문 취업 포털 게임잡에 따르면, 넷마블은 각 직군에서 직원 채용을 진행 중이다. 모집 직군은 AI·데이터분석, 빅데이터, 게임퍼블리싱기

술, 게임퍼블리싱, 경영 각 부문이다. 채용절차는 신입의 경우 서류전형, 넷마블 TEST, 심층면접 순으로 진행된다. 네오플은 경영지원, 웹, 프로그래밍 등 부문에서 인재 채용을 진행한다. 현재 캐릭터 기획자, 경영관리팀 인재, 이벤트 기획자, UI·UX 디자이너 등 각 직군에서 채용을 진행 중이다. /한용수 기자